

세이버 교회 소식

-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노회 주관 제직 세미나 안내
노회 주관 제직 세미나가 1월 28일 주일 오후 5시에 뉴하트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시간: 오후 5시 / 강사: 박동건 목사)
주제: 코칭 공동체 훈련
제직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체 심방 안내
2018년 신년 사업체 심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이 있으시면 알려 주세요.
- 성찬식 안내
오늘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주 친교(플러스링 구역)
이번 주는 플러스링 구역에서 봉사하십니다.
다음 주는 우드사이드 구역입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1월, 2월 봉사위원

일자	주일기도	수요예배	친 교	안 내
01/28	섭	표하나	플러스링 구역	한순자
02/04	송명건	권한경	우드사이드 구역	한순자

예배 및 모임 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1부)	주일 오전 11시 30분	친교실
주일예배(2부)	주일 오후 1시 15분	본당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8:00	본당
토요새벽기도회	토 새벽 6:00	본당
주일학교	주일 오후 1:15	친교실
성가연습	주일 오전 11시	성가대실
성경공부(방학 중)	수요일 저녁 8시	1층 친교실
	목요일 오전 10시	
	토요일 오전 8시	

주일설교 요약

제목 : 소명과 사명

본문 : 에베소서 4장 11~12절

기도제목 : 1. 교회의 일꾼으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하소서.

2. 말은 일에 끝까지 충성하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의 굳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명과 사명입니다. 비슷한 단어이지만 그 의미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왕과 같이 높은 분이 어떤 사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콜링(Calling)이라고 합니다. 이 소명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사용됩니다. 교회라는 헬라어 '에클레시아'의 뜻이 바로 '부르다, 불러내다'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최악의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으로! 불러냈다는 뜻이 담겨 있는 단어가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불러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가진 소명의 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확신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이 확신! 이러한 확신이 있는 자에게 그 다음으로 주어지는 것이 사명입니다. 누군가 불렀다면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사명을 Mission이라고 합니다. 교회 제직이란 교회 직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목사 찬도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를 제직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제직을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 일꾼을 세우는 세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1)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2)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3)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입니다.

그리고 제직의 사명을 받은 자들의 자세는 말은 일에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그리고 말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은 처음과 끝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충성한다는 것! 처음과 끝이 같은 마음 같은 모습으로 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나 나를 부르시고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일에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세이버 교회 제직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붙들고 계신 일들이 주님이 맡기신 사명입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할 때, 먼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재능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내가 무엇을 잘하는 것을 따라서 일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어떤 상황에서는 능력과 재능에 상관없이 교회의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교회 일을 하다보면 내 적성과 기호에 맞지 않는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교회가 나에게 원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이버 교회 제직들은 내가 원하는 일만 하는 분들이 아니라,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제직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도 굳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무슨 일이 굳은 일인지! 저는 세이버 교회 제직이란 교회의 굳은 일들을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 이 표어를 들어보셨죠? 국가를 위해서, 국가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일들, 위험한 일들을 감당하는 부서였던 국가 정보원의 원훈입니다. 음지에서 일하며 그래서 양지를 빛나게 해 주는 사역! 이런 사역이 바로 우리 세이버 교회 제직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직들이 교회의 굳은 일들을 열심히 잘 감당해 주실 때, 우리 세이버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더욱 밝게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 우리 세이버 교회 모든 제직들의 귀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가는 말

우리 모두는 소명자이며 또한 사명자들입니다. 올 한 해 세이버 교회 일꾼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은 그 일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제직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합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고, 교회가 원하는 그 일, 교회의 굳은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올 한 해 우리들의 성감과 충성으로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 헌금통계

헌금은 본당 입구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구역별 선교사

롱아일랜드 구역	베이사이드 구역	플러싱 구역	우드사이드 구역
선교사 순회 선교	선교사 우간다	선교사 브라질	선교사 인도

담임목사 정요한

시무장로 최홍만 배한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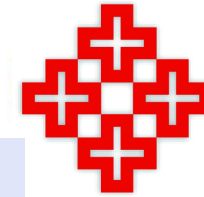
교육전도사 김차인 지휘자/반주자 김타마라

Address: 275 Lakeville Road

Great Neck, NY 11020

Tel : (718) 673-6448 / www.mysaviorchurch.com

2018년 1월 28일



SAVIOR
세이비어 CHURCH
교회

주일예배

	오전 11:30분(1부) 오후 1:15분(2부)	수요일예배
예배로 부르심 Call to Worship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경배와 찬양 말씀 / 정요한 목사 (베드로전서 강해) 기도 / 표하나 집사
▲ 송영 Invocation	찬양대 Chorus	
▲ 고백의 기도 Confession of Sin	다같이 Together	
▲ 찬 송 Hymn	나는 예배자입니다	
▲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 Apostles' Creed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3번(시편4편)	수요일 저녁 오후 8시
찬 송 Hymn	359장	
기 도 Prayer	송 섭 집사	
성 경 Scripture	에베소서 4장 11~12절	토요일 새벽기도회
찬 양 Praise	세이비어 찬양대	말씀 / 정요한 목사 (사도행전 강해)
설 교 Message	소명과 사명	
성찬식	떡과 잔을 나눕니다	
▲ 헌 금 Offering	71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토요일 새벽 오전 6시
▲ 찬 송 Hymn	350장	
▲ 축 도 Benediction	정요한 목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도자	

▲ 표는 가능하시면 일어나심 (Standing, If possible)